

2010년 자율관리 평가제도 개선 주요내용

예비평가 기관 축소 및 평가항목 일부 통합기로 3월중 평가대상 공동체 확정 ... 5월중 모범등급 결정 예정

농림수산물부는 자율관리어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평가제도를 마련, 금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의 등급화와 관련, 종전 예비평가 기관을 3개 기관(수산사무소, 시·도 지역협의회, 시·도 지도자협의회)에서 2개 기관으로 축소해 시·도 지역협의회 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평가비율은 지자체 90%, 지도자협의회 10%이다.

이와함께 본 평가는 시·도 지역협의회에서 모범등급까지만 결정하고, 풍요공동체와 최우수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지자체의 전자평가(예비평가)와 관련, 수산사무소의 평가항목을 대폭 축소하

고, 시·도 지도자협의회 평가도 항목별 배점 폭은 늘리되, 배분율을 조정하여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시·도 지역협의회는 본 평가는 3월중 평가대상 공동체를 확정하고, 행정서류 확인 및 시·도 지도자협의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오는 5월중 모범등급을 결정키로 했다.

전남지역 광역 워크숍

3월9~10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한국수산업회는 올해 6회에 걸쳐 실시할 광역단위 워크숍 중 첫 워크숍으로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월9~10일 양일간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전남지역 자율관리공동체 지도자 및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200여명이 참석, 자율관리어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공동체인 상장공동체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하며, 6개 공동체에서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 경진대회(예선)도 함께 열린다.

자율관리어업 전국지도자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2월18일 포항에서 ... 사단법인화 추진 현안 논의



자율관리어업 전국지도자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협의회 사단법인화 추진문제 등 현안사항들이 논의됐다.

자율관리어업 전국지도자협의회(회장 최동희)는 지난 2월18일 포항시 북구청 회의실에서 전·현직 회장단을 비롯 농림수산물부, 한국수산업회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농림수산물부 자원환경과 조성남 사무관이 '2010년 자율관리어업 추진계획' 및 평가제도 개편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설명한데 이어

전국지도자협의회 현안과제인 '사단법인화' 문제를 논의했다.

현재 전국지도자협의회 사단법인화 추진에는 기금 조성문제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지도자협의회 회장단들은 다음 날인 19일 포항 장길리 공동체를 방문,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및 어업현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제1차 자율관리어업 해외연수

오는 4월5~9일, 일본에서 실시

한국수산업회는 오는 4월5일부터 9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규슈 지역에서 금년도 제1차 자율관리어업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1차 해외연수는 복합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 위원장 및 지자체 공무원, 한국수산업회 관계자 등 24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자율관리 평가담당자 교육 및 용역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수산업회는 지난 1월28일 서대전역에서 시·도 및 수산사무소 자율관리어업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자율관리어업 평가담당자 교육 및 용역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교육은 한국수산업회 수산정책연구소 이광남 소장이 자율관리어업 소득 변화 조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농림수산물부 자원환경과 조성남 사무관이 평가지침서 개정내용, 오션인포 관계자가 자율관리어업 홈페이지 개선사업 착수 보고 순서로 진행됐다.

천일염 세계화 포럼 창립

우리나라 갯벌 천일염을 세계적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천일염 세계화 포럼'이 발족됐다.

농림수산물부와 김학용의원(한나라, 안성)은 지난 2월18일 롯데호텔에서 천일염 생산자단체, 식품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일염 세계화 포럼' 창립총회를 가졌다.

www.korfish.or.kr

“한국수산업회가 수산업 진흥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수산업회는 수산단체의 연합체 성격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1 어업분쟁조정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업종간 분쟁조정을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수산시장 www.fishsale.co.kr

농림수산물부 지원하에 비영리로 국내산 수산물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수산분야 컨설팅

수산분야 경영관리, 생산기술 등 수산전반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도와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산어촌 비전 2020 발표

394만톤 생산 ... 자율공동체 2,000개로
외해양식장 35군데 조성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0년까지 수산자원량 1,100만톤에 394만톤을 생산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08년에 비해 32%, 17%가 증가한 수치이다.

농수산부는 이를 위해 자율관리어업을 수산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확산해 오는 '12년에 자율관리공동체를 1,200군데, '20년에는 2,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산분야 '농산어촌 비전 2020'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연안어선 4만7,200척, 근해어선 2,342척으로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량에 적합하게 감

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연안어선은 5만156척, 근해어선은 3,055척으로 집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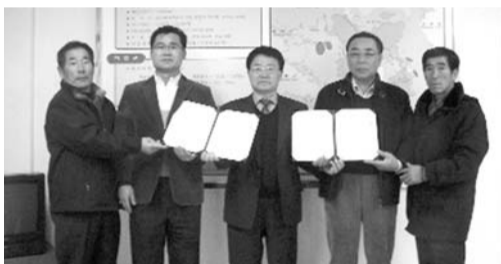
이와 함께 수온상승에 따라 수산자원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연근해 어장 관측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고호를 배합사료를 연구해 보급률을 현재 22%에서 '2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고 어린고기 탈출망,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년까지 35개소의 외해 양식장을 조성해 연간 1조원규모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여수도서지역어업용기자재이동수리소 운영

여수수산사무소, 화정면 도서 6개소 약정체결



여수수산사무소와 관내 어촌계장들이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체결후 기념촬영 모습.

전남수산기술사업소 여수지소(소장 임여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정면 지역 내 6개 어촌계와 '2010년 어업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

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기, 통신, 엔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수리반이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해당 어촌계를 순회할 계획이다. 어업인은 1인당 5만원 이내의 부품 2개까지는 무상교체가 가능하다.

어업기자재 이동수리소는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자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어촌계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토종 자연산 전복 교배 성공

10월말 이후 종묘생산 어가에 모패 분양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소장 신우철)는 토종 우수 자연산 전복 교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산기술사업소는 지난 2007년부터 서해 백령도를 비롯한 강원도 고성 등 전국의 각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 전복을 수집, 유전자 분

석을 통해 유전적 거리가 먼 개체간 교배 설계를 한 뒤 한층 다양화된 전복을 생산했다.

수산사업소는 오는 10월 말까지 최종 선별을 거친 후 전복 종묘생산 어가에 모패를 분양한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품종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 통영지역 어촌계장협회의 개최



경남 수산기술사업소(소장 김금조)는 지난 2월11일 정부 수산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 수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통영지역 어촌계장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우리 몸엔 우리 수산물

인터넷 수산시장 '피쉬세일' 이 있습니다

www.fishsale.co.kr

“패류 채취 한시적 어업허가 요망”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 주관, 어촌지도자협의회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이 지난 2월2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어촌지도자협의회에 참석해 어촌지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이상윤)는 지난 2월2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 부산시·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관내 어촌계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1/4분기 어촌지도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해 3월 어촌지도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부산의 여건에 맞는 수산정책 마련 및 어촌의 현안해소를 위해 민·관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어촌지도자들은 △패류 채취를 위한 한시적어업 허가 △부산 남항 항만시설 점·사용료 면제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업 강력단속 등을 건의했다.

한편 부산시는 최근 '해양산업육성조례' 및 '어업·어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 수산업발전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수산업 진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앙정부 - 지도직 네트워크 구축



농림수산식품부, 파트너십 강화 워크숍

중앙정부-지자체 지도조직간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워크숍이 지난 2월5일 농업연수원에서 열렸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지방수산사무소장, 전국 도농업기술원장,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농어촌현장의 기술지도 관련간부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지도기관장들은 분임토론을 통해 지방의 연구지도업무의 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지방 농정조직간 소통의 장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상호간 거

리를 좁히고 애로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우수공동체 현판식

강원도 동해수산사무소



강원도 동해수산사무소(소장 박영규)는 2009년 전국 자율관리공동체 등급평가에서 도내 강원홍계통발협회, 춘천호 내수면공동체, 강릉시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3개 공동체가 최고등급인 풍요등급을 받는 등 도내 36개 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됨에 따라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작한 지정패 전달 및 현판식을 가졌다.

알림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 원고모집

지난 2001년 '새 어촌운동'을 모토로 시작된 자율관리어업 정책이 이제 정착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확산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환기를 맞고 있는 정책이 더욱 탄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자율관리 공동체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산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 및 어촌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성공사례를 모집, 이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고자 합니다. 어업인 및 어촌지도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대상 : 자율관리어업 참여 어업인 및 지도담당 공무원

▶내용 : 공동체 성공사례 등 자율관리어업 관련 사항

▶문의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지원팀 (전화 02-589-4604)

※ 채택된 원고에는 우리 회 규정에 따라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특 별 기 고

자율관리어업의 '현재'와 '상생(相生)의 미래'

자율관리어업은 이제 어업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고 또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수산업의 대표적인 친(親) 어업인 정책이다. 그동안 수산 현장에서 느낀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는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항상 명암이 존재하듯 자율관리어업 또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어업인들과 관계기관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자율관리어업의 가감 없는 현실인식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자율관리어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 이상의 결과물을 도출했다. 우선 바다에 대한 어업인의 올바른 자리매김이다. 지금까지 어업인들은 바다를 일구어 온 주인으로서의 역할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바다에 대해서 자율관리어업을 통해 당당히 권리와 의무를 내세우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 하나는 '業(업)'에서 '匠(장)'으로의 전환이다. 수산업, 어업이라는 단순한 생업의 개념에서 벗어나 예술품을 빚어내는 장인처럼 해역별로 특색있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발굴하여 어촌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더불어 어촌지역사회에 있어서 자율관리 공동체의 역할 확대이다. 인구 감소로 인해 점차 와해되고 있는 어촌

사회에서 공동체 결성을 통해 상부상조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이어가고, 사회복지제도의 그늘에 있는 회원에게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보탬을 줌으로써 지역 사회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물과는 달리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자율(自律)'이란 표현의 한계이다. 원래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인 규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새어촌 운동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공동체가 자율이란 표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동체 회원들의 단기적인 성과 및 인센티브에 집착하는 현실과 평가점수를 고려한 사업추진, 민간단체로서 지역 어업인을 대표해야 하는 일선 수협들의 소극적인 역할과 방관적인 자세, 그리고 민간단체인 한국수산회의 열악한 업무 여건에 이르기까지 민간 주도의 이상적인 자율관리어업은 요원한 상태이다.

또한 형식에 치우치는 사업추진의 문제점이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의식 전환 운동이고 이를 위해 매년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자율관리어업은 정형화된 공식처럼 여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신청해서 지원 받는 보조사업으로 받아들여



박중구
강원도 동해수산사무소 속초지소 자율관리어업담당

지는 경우가 있다. 진정한 성이 훼손된 자율관리어업은 추진하는 어업인도 이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공무원과 전문가에게도 힘든 현실이 되고, 결국에는 사업추진을 포기하거나 소홀해지는 공동체가 생기게 마련이다.

끝으로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간혹 자신들의 장점만을 부각하여 주변 공동체와 비교하면서 평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가 있다. 자율관리어업은 말 그대로 강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에 따르는 혜택 역시 온전히 그것을 지켜나가는 공동체의 몫이므로 평가에 대한 손익을 따지는 행위는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수산사무소의 경우, 지자체 이양 이후 업무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타 시·도와의 평가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경쟁심에 의해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사례로 돌아본 자율관리어업은 현재에도 완성 상태가 아닌 발전의 진행과정에 있으므로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실질적인 사례가 발굴되어 공론화의 과정이라는 성장통을 겪으면서 발전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이 생명력을 가진 유기적인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생(相生)'의 정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현재 수산업은 초고령화에 접어들어 산업으로서 종사 인구의 유입보다는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 세대 이후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어촌사회의 전통을 이어나갈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고, 결국 가치 있는 수산자원의 보고로서 우리 바다를 가꾸어 나갈 기회를 잃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재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유대를 바탕으로 자원의 조성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고자 결성된 자율관리 공동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개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상생(相生)'의 공동체 결성은 작게는 단일 공동체로부터, 크게는 시·도 단위 자율관리 지도자협의회, 최종적으로는 전국지도자협의회를 거쳐 서로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바다를 풍요로운 미래로 개척해 나가는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추진하는 자율관리어업은 '신(新) 수산시대'의 창의적인 이정표가 되어 우리 어장을 더욱 경쟁력 있고 가치 있는 경제 공간으로 일구어 나가고, 그 곳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은 물론 이방인에게도 매력적인 곳으로서 삶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공간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바다를 지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율관리어업은 가장 현명한 투자처인 셈이다.

지도·경제사업 통합... 중앙회장 비상임화 수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지난해 4월30일 국회에 제출된 수협법 개정안이 9개월여 만에 지난 2월2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소위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23일~24일 개최된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 및 강기갑, 류근찬, 조진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총 6건을 병합 심의한 결과 단일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중앙회관련 내용은 △회장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도·경제사업 부문 통

합 등 전문경영체제 확립 △중앙회장의 비상임화 및 연임 제한으로 대외적 대표 역할에 전념하고 △인사 공정성 확보 및 전문경영인 유치를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지도경제대표이사, 사외이사 2명, 조합감사위원 2명 등을 추천토록 했다.

일선수협과 관련된 내용은 △경영이 부실한 일선수협 조합장의 비상임 의무화했다. 경영 정상수협은 조합장 비상임 여부 선택권을 부여하고 MOU 목표 2회 연속 미이행한 부실수협 조합장은 비상임 하도록 했다.

완도군, 양식장비 임대사업 추진 지자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 8억 투입

전남 완도군이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식장비 임대사업에 나섰다. 완도군은 전복 등 양식 장비 기계화를 촉진하고, 어업 생산성 향상과 영세 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값 비싼 장비를 사 빌려주는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8억원을 들여 죽은고기 수거차량을 비롯해 활어 차, 액화 산소 용기, 산소 발생기, 전복 선별기 등을 상반기 안에 사 전남 서부 어류양식수협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도시-어촌 자매결연운동 활성화 추진 수협중앙회, 지침 마련 및 지원금 증액



수협은 도시-어촌 자매결연운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최근 보령수협 관내 도서지역 11개 어촌계와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모습.

수협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어촌 교류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는다.

수협 어촌지원단은 지난 1월말 회원조합의 자매결연 체결과 교류행사를 지원하는 '어촌사랑 자매결연운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지침(이하 '자매결연 활성화 지침)과 자매결연기업과 단체의 어촌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어촌사랑 여행·행사지원 지침(이하 '어촌사랑 여행지침)'을 각각 마련하고 이들을 회원조합과 자매결연기업·단체에 안내했다.

먼저 자매결연 활성화 지침에는 기존의 자매결연체결과 교류행사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원체계를 자매결연 행사지원으로 일원화하며 1회당 150만원 이내에서 총 600만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어촌사랑 자매결연 활성화 촉진 지원으로 연간 100만원이 지원가능해 총지원가능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 증

가했다. 어촌사랑 여행지침에는 기존에 자매결연기업·단체가 어촌계 교류행사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자매결연 맺은 어촌계원을 자매결연 기업이나 단체로 초청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일정부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자매결연 교류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기본적으로 1회당 150만원, 최고 4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 3회 이상 교류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150만원이내에서 추가지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사업소 탐방 /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

툽날꽃게, 부산특산종으로 개발해 어가 소득증대 역점

개량조개 등 우량종묘 350만마리 방류 ... 해조류 전문연구센터 건립 추진



이상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장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이상윤)는 지난 2월2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촌계장 8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어촌지도자 협의회를 주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례적으로 허남식 부산시장까지 참석했다. 어촌지도 업무가 지난해 3월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어업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최고 책임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세력이 크지 않은 관내 수산업의 특성을 감안, 그동안 수산종묘 생산·방류에 주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보리새우 175만마리를 비롯, 넙치, 참돔, 돌돔, 감성돔 등 고급어종의 종묘 252만마리를 영도와 강서, 사하지역에 방류했다.

또한 어촌지도자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장에 어업인상담소를 개소하는 등 수산기술 보급체계를 구축하는데도 역점을 뒀다.

올해의 경우 수산종묘 생산을 지난해보다 100만마리 정도 늘려 방류하는 한편 처음으로 개량조개 종묘 방류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년부터 방류효과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1012년까지 3년간 품종별 생태·분포·이동성 등의 조사를 통해 최적의 방류기법을 연구해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생태계 복원을 위한 낙동강 하구 서식생물 연구도 금년도의 주요 사업과제 중 하나이다. 낙동강 하구수역 수중 생태계 먹이사슬 등 서식생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이와 더불어 어가 소득증대 방안으로 툽날꽃게를 부산의 특산종으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3년간의 일정으로 연구에 착수한 툽날꽃게는 현재 섭이·탈피·교미등 일반생태 연구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성숙과 산란, 유생사육 연구에 착수했다. 이 연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육상양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산자원연구소는 자율관리 공



①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개량조개, 보리새우 등 우량 수산종묘 6개 품종 350만마리를 방류해 자원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② 기장 일광천에 회귀한 연어를 포획, 친어로 활용함으로써 이 지역 연어 회귀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③ 수산자원연구소는 관내 어촌계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어촌지도자협의회를 통해 어촌 현장에서의 현안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동체 확산지원을 위해 올해 활동이 저조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한 우량 수산종묘를 자율관리 공동체 확산과 연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윤 소장은 여타 지역에 비해 비록 수산세력은 미약하지만 건실한 공동체 육성을 위해 현장교육 강화에 역점

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종묘를 자체 생산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수산자원연구소와 기장군 어업인, 부경대학교 간 공조체제를 구축, ‘해조류 전문연구센터’ 건립해 그동안 전남지역에 주로 의존해 온 종묘를 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우량종묘로 대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0년 육성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 수정 명단

지난 1월호 4면에 수록된 2010년 육성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 중 일부 지자체(전남·경남)의 지원대상 공동체 재선정 및 누락된 신규 지원대상 공동체 명단을 포함하여, 육성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 명단을 재수록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 전남·경남 지원대상 공동체 (90개소)

□전남(56개소) △여수 신월(곽영수, 마을) △여수 복산(박행수, 마을) △여수 적금(박종길, 마을) △여수 사곡(김정현, 마을) △여수 원포(도인용, 마을) △여수 중앙(김영근, 마을) △여수 두문(윤상정, 마을) △여수 거문(임석희, 마을) △여수 상동(곽남철, 마을) △여수 화태(박홍광, 마을) △여수 연도(김본준, 마을) △여수 오천(신진호, 마을) △순천 우명(이종오, 마을) △순천 용두(신평식, 마을) △고흥 여의천(김옥곤, 마을) △보성 상장(김만석, 마을) △보성 제두(김

종근, 마을) △보성 하장(장동섭, 마을) △보성 서당(김복삼, 마을) △보성 호산(왕평호, 마을) △장흥 신월(김민홍, 마을) △장흥 수문(정재남, 마을) △장흥 사촌(김두홍, 마을) △강진 원마1구(김사우, 마을) △강진 수인(안창열, 마을) △강진 남호(정근수, 마을) △강진 백사(황성환, 마을) △강진 봉황(이창호, 마을) △해남 어불(신형석, 마을) △여수문어단지(강재화, 어선) △여수잠수기(하재규, 어선) △강진낙지통발(차영호, 어선) △무안 동암(정무상, 어선) △영광 하낙월어선어업(박영태, 어선) △영광 계마어선어업(김영호, 어선) △완도낙지통발(박순봉, 어선) △진도새우조망(김영옥, 어선) △진도 신전(문천주, 어선) △고흥 여호(강공남, 양식) △고흥 청석(장현호, 양식) △고흥어류양식(김성윤, 양식) △고흥 신평(정덕재, 양식) △고흥 동촌(정중환, 양식) △해남 중마(김창렬, 양식) △해남 내장(이승철, 양식) △완도 충도(이현, 양식) △완도 해동(김영수, 양식) △완도 지리(김성철, 양식) △완도 당산(전재근, 양식) △진도보전참전복(문재원, 양식) △진도 모도(김두성, 양식) △신안 이곡(권성복, 양식) △신안 심리(이정두, 양식) △무안 마동(오영일, 복합) △

신안 도목(김남중, 복합) △나주 동강내수면(장형남, 내수면) □경남(34개소) △통영바다목장(차홍기, 어선) △통영수산업경영인연합회(황희수, 어선) △거제 다포(권정호, 마을) △거제 학동(최정윤, 마을) △거제 탑포(한판주, 마을) △통영 산양연화(이기진, 마을) △고성 두포(이재문, 마을) △통영 옥지연화(이남권, 마을) △통영 수도(조영철, 마을) △통영 산등(정병호, 마을) △거제 수산(김삼용, 마을) △통영 내항(박평진, 마을) △남해 사항(한수만, 마을) △거제 상근(김동식, 어선) △거제연안통발(박점준, 어선) △남해 남부연안자망(이동형, 어선) △진해 연안자망(신호일, 어선) △사천 삼천포외줄낙시(이명균, 어선) △통영 연안자망(한태열, 어선) △사천 삼천포죽방렴(전태곤, 어선) △통영 소형채낙기(안현일, 어선) △남해 손도죽방렴(전대영, 어선) △남해 멀치유자망(김차윤, 어선) △마산 미더덕영어조합(이경구, 양식) △거제 일운면어류양식(정태천, 양식) △거제 울포(김광석, 복합) △거제 대포(오정식, 복합) △거제 법동(박명재, 복합) △산청군 내수면(김진규, 내수면) △남해 진목(박영호, 마을) △통영 잠수기(이기용, 어선) △거

제 명사(강대운, 복합) △남해 정치망(최영신, 어선) △고성 하이(최명규, 어선)

■ 신규공동체 (24개소)

□부산(1개소) △청사(김병수, 복합) □인천(2개소) △흥왕(민명섭, 마을) △내개(박용오, 어선) □강원(7개소) △고성 봉포(배오복, 마을) △동해 묵호자망(강득용, 어선) △동해 어달자망(고경수, 어선) △속초 채낙기연합회(이성삼, 어선) △강릉 유자망(김진호, 어선) △동해 수산업경영인(김인수, 어선) △홍천강내수면(정철경, 내수면) □충북(1개소) △옥천 금강(염성균, 내수면) □충남(1개소) △태안 황촌2리(김경옥, 양식) □전남(6개소) △고흥 새우조망(박태길, 어선) △순천 와운(박홍수, 양식) △완도 충도(김만우, 양식) △영광 월봉(최종천, 복합) △신안 고평사리(강춘복, 마을) △여수 덕촌(배민재, 마을) □경북(1개소) △포항 모포(김정환, 마을) □경남(5개소) △거제 저구(김석준, 마을) △하동 양포(곽산구, 마을) △진해 남양연안자망(김영도, 어선) △남해 미조남해연안통발(이성용, 어선) △남해 설천모천(류동제, 복합)